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마치고

서 명 수

세영건설(주) 대리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과정 제49기 수료생

양성과정 수강중 실습과제에 따른 현장안전 점검결과 내가 점검한 대전 ○○BD 신축공사 현장은 1년동안 1건의 재해가 발생한(경상 1건의 1인 재해자 발생) 비교적으로 안전관리상태가 양호한 현장이라 할 수 있겠으나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만큼 안전조직 및 전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보이므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교육을 통해 의식구조를 개선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하나 짬이야” 하는 안일무사한 마음과 태도를 고쳐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하는 굳은 의지로 무사고를 이루어 각자의 가정에서는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며, 나아가 산업역군으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의 최일선에서 타의 모범으로 모든 작업에 솔선수범하면 올바른 안전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되리라 본다.

“안전에 너! 나! 없고 사고도 너! 나! 없다”

“올바른 안전문화 정착시켜 사고 뿌리 뽑자!”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각자에게 부여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며, 전근로자가 이를 따르고 안전이 습관화되어 무의식중에도 안전행동이 취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때 무사고, 무재해 현장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끝으로 기술인으로서 당장 눈앞의 이익은 배제하고 안전관리비를 유효 적절히 활용하여 안전을 생활화하고 고품질, 고강도의 우수한 건축물 및 구조물을 완성하여 그동안 여러가지 대형사고로 인해 몸살을 앓고 국제적으로 실추된 국위 선양에 힘써야 하겠다. 한번 실추된 명예를 회복키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